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자산 거품은 두려워하지 않는 연준
  - ◇ (시장진단)-9월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봐야 하나..국내 전문가들 온도차
  - ◇ (초점)-금통위원이 제기한 '코로나 물가' 과소측정 가능성..헤드라인 갭 얼마나?
  - ◇ (시장진단)-빚장 풀린 달러/원, 역외까지 가세하며 하락 가속화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자유민주당 총재로 선출된 직후 함께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로이터/공동취재단 유진 호시코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9월1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60.3	2.3%	-0.3%	-3.5%	유로	1.1837	-0.1%	5.6%	-2.3%
100엔 대비	1,113.8	0.4%	-4.6%	-4.4%	엔	104.55	1.5%	3.9%	0.9%
유로 대비	1,378.8	2.1%	-6.2%	-1.3%	위안	6.7642	1.0%	2.9%	-1.3%
위안 대비	172.03	1.0%	-3.7%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7,657.42	0.0%	-3.1%	22.3%
코스피	2,412.40	0.7%	9.8%	7.7%	나스닥	10,793.28	-0.6%	20.3%	35.2%
코스닥	888.88	0.0%	32.7%	-0.9%	S&P500	3,319.47	-0.6%	2.7%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69.35	1.5%	3.0%	15.8%
국고채 3Y	0.907%	-1.9bp	-45.3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98%	-3.0bp	-28.2bp	-40.4bp	미국채 2Y	0.141%	1.2bp	-142.0bp	-93.7bp
국고채10Y	1.503%	-2.7bp	-18.0bp	-26.5bp	미국채 10Y	0.697%	2.8bp	-121.3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1.11	10.1%	-32.7%	34.5%	한국 5Y	22.1bp	-0.1bp	1.1bp	-17.0bp
금(현물)	1,949.69	0.4%	28.5%	18.3%	일본 5Y	15.6bp	0.0bp	-2.2bp	-4.0bp
TR상품지수	2,497.25	2.0%	0.4%	4.8%	중국 5Y	35.7bp	-0.1bp	5.0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9월 21일(월)>

- 관세청, 9월 1-20일 수출입동향
- 국회 기재확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22일(화)>

- 한은, 8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23일(수)>

-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07:30)
- 통계청, 7월 인구동향, 8월 국내인구이동 (12:00)

### <24일(목)>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 금융회의(08:00)
- 기재부, 2차관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10:30)
- 한은, 금융안정 상황(9월)(11:00)
- 기재부, 10월 국고채 발행계획(17:00)

### <25일(금)>

- 한은, 9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한은, 「지역경제보고서」 발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국민연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국민연금 가입 제도 개선계획, 해외투자 종합계획 등)(14: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9월 21일(월)>

- 미국, 8월 전미활동지수 (21:30)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화상회의 '지역재투자법(CRA)' 관련 회의 (23:00)
- 일본 휴장

### <22일(화)>

-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9월 비제조업 기업 전망 서베이 발표 (21:30)
- 미국, 8월 기존주택판매 (23:00)
- 유로존, 9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3:00)
- 일본 휴장

### <23일(수)>

-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유로존, 9월 마켓 제조업 · 서비스업 PMI (17: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9월 마켓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 (22:45)
- 뉴질랜드,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검토 결과 발표

### <24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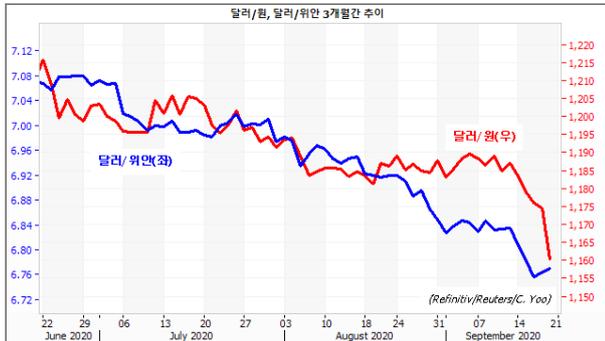
- 일본, 7월 14-15일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8:50)
- 미국, 8월 건축허가 수정치 (21:00)
-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8월 신규주택 판매 (23:00)
-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 (23:00)

### <25일(금)>

- 미국, 9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00:00)
- 유로존, 8월 총 유동성(M3) 증가율 · 가계대출 (17:00)
- 미국, 8월 내구재주문 (21:3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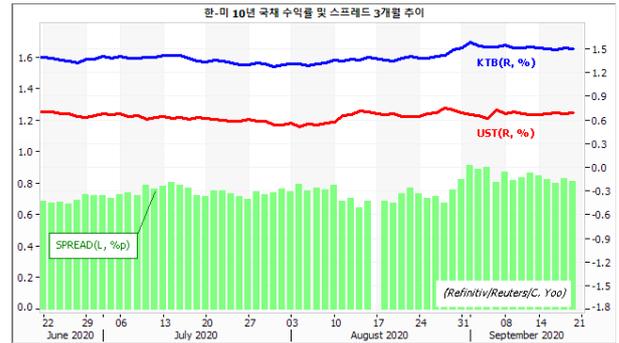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지난주 급하강했던 달러/원은 이번주 들어 하락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55-1175 원이다.
- 글로벌 달러 약세 여건 속에서 위안화 강세 모멘텀이 확산되자 원화는 절상압력을 한꺼번에 분출했고, 그 결과 환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반영하기 이전 레벨인 1160 원으로 단숨에 돌아갔다.
- 한 달 이상 1180 원을 중심의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환율의 하단이 무너지자 이에 따른 시장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 환율 급락으로 그간 견조했던 결제가 한발 물러선 가운데 오히려 네고가 앞서 나오는 등 수급상의 변화도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역대 수급 구도에 환율 흐름이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 다만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갈등이 다시 시장 재료로 부상하면서 그간 강세 일변도였던 위안화 대한 조정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도 생겼다.
- 오는 24일 FTSE 러셀은 연례 리뷰에서 중국 국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여부를 발표한다. 이는 최근 위안화 강세를 견인해온 재료였던 만큼 이에 따른 파장은 주목된다.
- 이에 달러/원은 단기 저점 탐색 과정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추가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
- 한편 이번 주중에 주목할 대내외 지표로는 21일 9월 20일 기준 한국 수출입 잠정치와 유로존 및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 등이다.
- 주요 일정으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돼 있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주 채권시장은 엇갈리는 매수, 매도 재료와 함께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이번 주중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 연말까지 5 조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하겠다고 밝힌 한은이다. 가급적 매월 말에 단순매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추석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주로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국회는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4차 추경안이 예정대로 처리되면 기획재정부는 24일에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다. 연말까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10월에 국고채 발행 물량을 늘릴 것이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분석이다.
- 한은 단순매입 때까지는 채권시장이 소폭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 다만 10월 국고채 3년물, 30년물 입찰 전까지 일정 부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지도 의문이다.

**(초점)-자산 거품은 두려워하지 않는 연준**

뉴욕 (로이터)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16 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투자자들이 얻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연준이 미래의 자산 거품을 걱정하느라 노심초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연준은 올해 미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판데믹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자산매입을 시작하는 등 전례없는 부양 노력을 폈다. 이에 자산매입이 촉진되며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다.

파월 의장은 판데믹 이전 10년간 지속됐던 미국 경제 확장세에도 양적완화와 저금리가 포함됐었지만 금융 거품이 일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매입과 금융 안정성 간의 관계가 특별히 타이튼한 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월 120억달러 규모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도록 금리를 적어도 2023년까지는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Full Story)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5월 이후 회사채 매입을 일부 줄이면서 약 7조달러 부근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3월 첫 주 대차대조표 규모는 약 4조 2900억달러였다.

BMO 코어플러스 채권펀드의 스캇 킴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준의 정책이 증시와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산 랠리를 불러온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정책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시장 랠리는 연준이 그동안 취해온 많은 조치들의 최종 결과이며, 연준은 리스크 자산 증대가 갖는 자산 효과는 실제적이지만 체계적인 리스크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의 3조달러 부양책과 금리 인하에 힘입어 S&P500 지수는 3월 저점에서 약 51% 반등했다.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수는 현재 주가수익

비율이 27.2로 역사적 평균 16을 두 배 가까이 웃돌고 있다.

웰스파고펀드의 브라이언 제이콥슨 멀티에셋 전략가는 "연준은 투자자들에게 통화정책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 6개월보다는 더딘 속도로나마 계속 랠리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준이 한 발 더 나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장기 채권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주식시장 조정을 막기 위해 채권매입 기간을 늘리거나 자산매입을 좀 더 보편적으로 강화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넷얼라이언스의 앤드류 브레너 국제 채권 담당 헤드는 연준이 자산 매입을 연장하거나 장기물 매입을 확대하거나, 또는 수익률 커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써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도비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일 0.67%에서 0.69%로 상승했고, S&P500 지수는 0.46% 하락했다. 30년물 금리도 1.43%에서 1.46%로 상승했다.

장기적으로는 연준의 발표가 이미 자리를 잡은 추세에 도움이 됐다고 투자자들은 해석했다.

알비온파이낸셜의 제이슨 웨어 CIO는 "(연준의 발표는) 채권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시각을 뒷받침했다"면서 그 결과 "상대적으로 주식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시장진단)-9월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봐야 하나..국내 전문가들 온도차**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6일(현지시간)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0.00~0.25%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일정 기간 완만하게 넘어설 때까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을 밝힌 데 이어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것

으로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재확인된 것으로 해석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금리를 매우 부양적으로 유지한다는 이야기"라면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매우 강력한 성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준은 현재의 국채 매입 속도를 적어도 현재의 월 1200억달러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금융시장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3.7%를 기록한 뒤 2021년 +4.0%로 반등한 뒤 2022년 +3.0%를 기록한 후 완만한 속도로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들은 적어도 2023년까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준 회의에서 평균물가목표제 공식 도입에 따른 새로운 통화정책 전략이 명시됐다는 해석과 함께 이를 통해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험자산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연준이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스탠스는 이미 예상된 데다 당분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위험자산 강세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이 17일 발간한 FOMC 회의 관련 보고서 주요 내용을 취합한 것이다.

#### ▲ 이승훈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파월 의장은 이번에 변경된 가이드언스가 '강하며, 오래 가는' 형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상당 기간 동안은 구체적 시점이나 금리 인상의 정량적 목표 제시가 아닌 현행 가이드언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의 경제 전망에 기반한 인식 하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는 2024년 상반기 전후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의 절대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의 영역에 장기간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위험

자산에 중·장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본다."

#### ▲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FOMC 성명서에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2% 물가 목표로 빨리 되돌아가는 데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미 연준이 디플레이 파이터로 전환했음을 시장에 분명히 알려준 것이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 강화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달러화에도 추가적인 약세 압력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시장은 추가 모멘텀을 목말라하고 있는데 재정 부양 정책, 대통령 선거 및 백신 관련 뉴스 등이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변수 역할을 할 것이다."

#### ▲ 강승원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 평균 물가 상승률 수준이 2%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는데 연준 물가상승률 타겟은 사실상 기존 2%에서 2.4~2.5%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연준의 2022~2023년 물가 전망치 상단이 2.1~2.2%에 그친다는 점을 보면 연준 스스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준은 무제한적 완화 스탠스를 천명한 것이다."

#### ▲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

"연준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지만 상당 기간에 걸쳐 제로금리를 유지한 것과 동시에 향후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연준의 현재 정책 스탠스가 단기적인 지표 반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적잖은 기간에 걸쳐 완화적'이란 쪽에 맞춰진 점이 다시 확인됐다. 연준이 저금리 유지와 함께 자산매입 확대 등을 통해 꾸준히 자산시장에 안전판을 제공하겠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추후 기대되는 재정정책과 맞물릴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 ▲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

"경기 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강조하며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악화될 경우 추가 조치 제시를 거론하며 경제 및 금융시장 하단 지지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추가적인 통화정책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

고 재정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선제적 경기 부양에 있어 통화정책 한계도 분명했다. 향후 경기 진작은 재정정책이 주도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은 재정정책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악화되거나, 재정정책이 확대돼 재정정책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 기조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

▲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연준이 제로 금리 지속 기간을 일년 더 연장하고 경기 부양에 정책 우선순위가 있음을 강조했다지만 이는 예견된 수순에 불과하다. 자금흐름의 위험자산 선호 동력이 추가 확보되지 못한 가운데 하락 지지선인 93선 내외에서 미 달러지수 교착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 악화 및 통화 가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다만 원화의 경우 위안화 강세로 당분간 약세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점】-금통위원이 제기한 '코로나 물가' 과소측정 가능성..헤드라인 갭 얼마나 되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일부에선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과도하게 낮은 물가는 이례적인 전염병 확산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를 공식 통계지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착시효과'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일부 금통위원 '코로나 물가 과소측정 가능성'..미국서도 논란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저물가 전망을 근거로 한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필요성 주장'에 대해 물가상승압력의 과소 측정 가능성을 근거로 반박했다.

이 위원은 "물가에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자가주거비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데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위주로의 소비구성 변화가 물

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물가 측정상의 여러 이슈들을 물가지수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위 코로나 19 시대에 소비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와 공식 통계지표 간에 큰 '갭'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미국에서도 제기됐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알베르토 카발로 교수가 지난 7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실제 소비자들의 지출 비중을 토대로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을 재조정해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는 0.95%였다.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헤드라인 물가(0.13%)보다 0.8% 이상 높아진 수치다

카발로 교수는 코로나 19 이후 상황을 근거로 바스켓 조정을 해 10 여개국 이상 국가를 조사한 결과도 내놓았는데, 이 중 한국의 경우 물가지수가 -0.45%에서 0.04%로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카발로 교수는 소득이 낮은 그룹의 경우 이같은 코로나 19 발 물가 상승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물가당국도 가능성 인지..'가중치 조정시 물가 상승할 것'

전례가 없는 코로나 19 확산 속에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전의 품목 가중치로는 실제 물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가 당국 역시 이같은 변화를 통계에 담아내는 작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은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고려해 정해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그 비중이 크게 달라졌다"며 "현재 물가는 코로나 19 이전에 사람들이 소비한 비중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물가가 그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물가를) 당장 공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연말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때까지는 참고할 만한 지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했는데 해외 단체여행이나 기타 여행 등 그동안 꾸준히 가중치를 늘려 왔던 품목의 가격은 계속 하락했다"며 "정부 정책에 따른 물가 하락 요인도 큰 상황이라 공식 물가와 체감물가간 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조사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편 연도라 내년 말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한 조정 물가를 발표할 것"이라며 "지금도 일단 내부적으로 수치가 있긴 한데 대외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엄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시장진단)-빗장 풀린 달러/원, 역외까지 가세하며 하락 가속화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들어 달러/원 환율이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한 달 넘게 1180 원대에서 불박이 장세를 형성하던 환율은 최근 연일 저점을 낮춰 8 개월 만에 처음으로 1160 원대까지 내려섰다.

지난 7월 유로화 강세를 앞세워 글로벌 달러 약세가 거세게 진행됐지만 이에 대한 달러/원의 반응은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위안화 강세가 급부상하자 달러/원 지형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8월 위안화(CNH) 절상률이 약 2%였던 데 반해 원화는 0.3%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원화가 약 1.8%로 위안화 1.4% 수준을 소폭 앞선다.

#### ▲ 원화 절상 가속화, 뭐가 달려졌나

최근 원화 절상을 부추긴 가장 큰 배경으로 위안화 강세가 꼽힌다. 위안화 추가 절상 전망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중국 경제 회복이 가시화된 데다 외국인 채권투자 등에 힘입어 위안화 강세 압력은 확대돼 왔다. 이런 가운데 24일 FTSE 러셀이 연례 리뷰에서 중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게 반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해외 기관들은 달러/위안 전망을 속속 하향 조정했다.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고시환율을 보면 최근 트렌드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감지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FTSE 러셀 지수 편입과 미국 대선 토론 등의 이벤트를 감안해도 위안화 강세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반영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위안화 강세 여건 속에서 달러/원은 1180 원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왔다. 그간 워낙 1180 원대를 하단으로 강한 박스권이 형성됐던 터라 수급 주체들도 이에 맞게 대응해온 측면이 크다.

하지만 위안화 강세 압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마저 겹치면서 달러/원의 본격적인 하락 시도가 이어졌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정부가 코로나 19 재확산 완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자 원화는 대외 여건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그간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부분을 따라잡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1180 원대가 무너지자, 한동안 소극적이었던 역외투자자들의 달러 매물이 적극 유입됐고 이에 달러/원 하락 속도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사실 1180 원 깨지기 전까지는 달러 약세에도 원화가 별 반응이 없었는데 1180 원이 무너지면서부터 역외들의 달러 매물이 확실히 나오고 있다"면서 "여태까지 달러 약세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던 원화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 추격 매도가 관건

이번 주 들어 달러/원 환율이 1160 원대로 급격하게 레벨을 낮추자 시장참가자들의 고민도 깊다. 사실 1180 원대를 둘러싼 저점 매수 인식이 쉽게 걸히지 않았던 탓에 달러/원 하락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하지만 달러/원이 글로벌 달러 약세 여건 속에서 하향 시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의 단기 저점 탐색 기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정에서 그간 저점 결제가 우위를 점했던 수급  
구도상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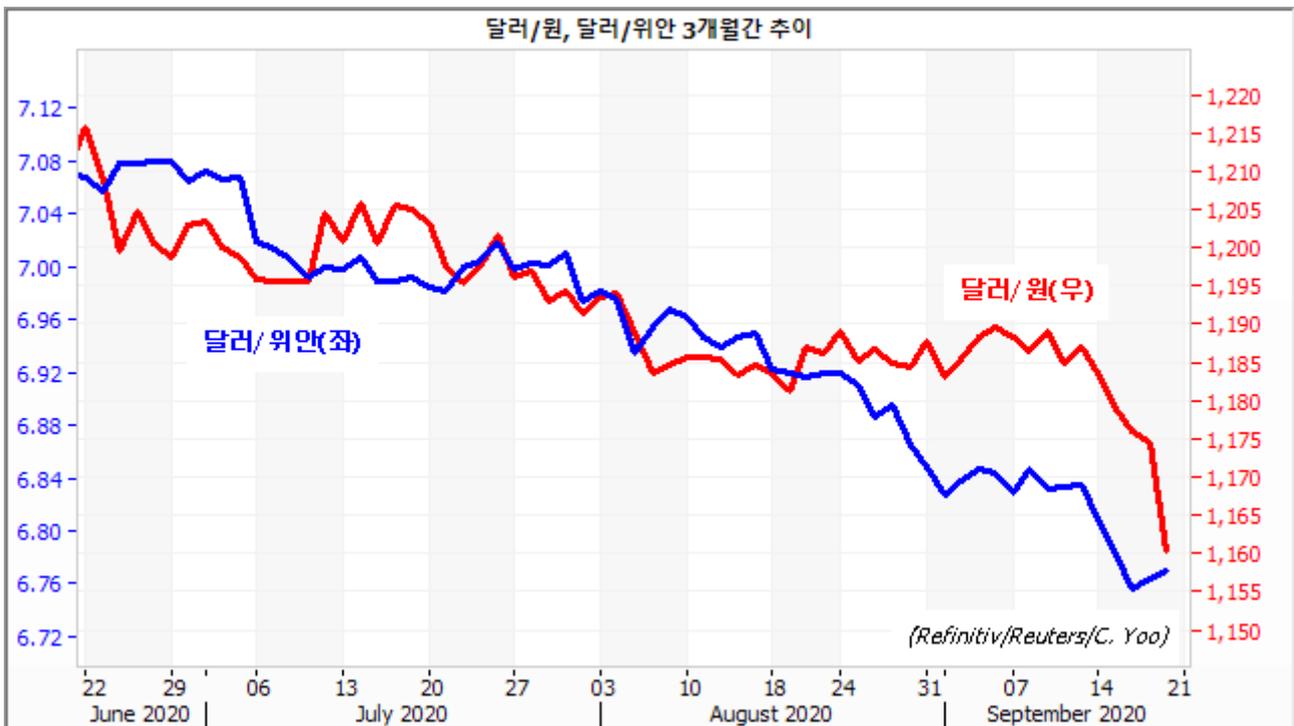
C 은행 외환 달러는 "별다른 지지선이 없어 차트상  
으로는 1150 원대까지는 열려있는데 그간 감지되지  
않았던 업체들의 추격 매도가 추석을 앞두고 나올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A 은행 외환 달러도 "1200 원 근처로 환율 반등을  
기다렸던 업체들의 달러 매물이 어떻게 소화될지가  
변수"라고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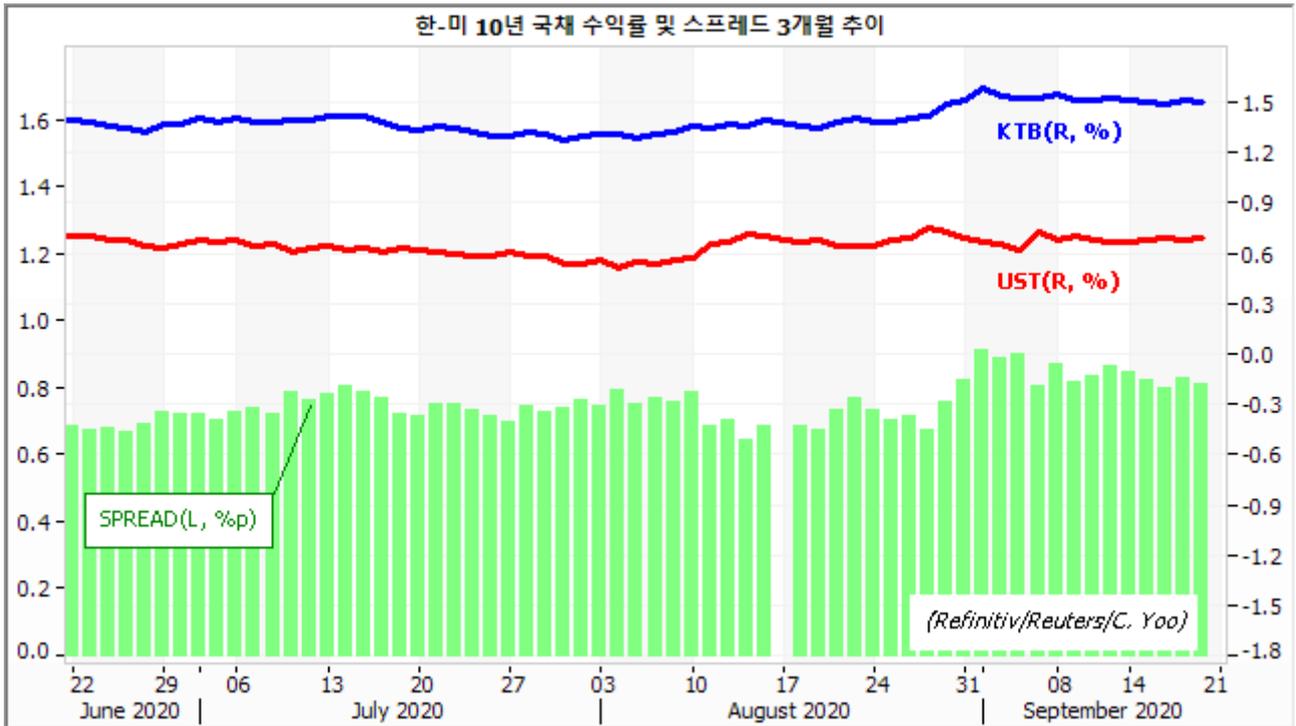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